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The Biblical Approaches
for Sustainabl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목차상

- I. 머리말
- II. 하나님의 창조환경과 인간의 책임
- III. 인간의 환경에 대한 개발 행위
- IV. 지속적인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방법
- V. 맺음말

Abstract

Today, we live, act, think, tempt like for the only present times in all actions, being rested in peaceful oblivion against the Law of God. Based on these results, we were aroused concentration in all fields like industries, dwelling-houses, traffics, provisions and energies ect. So environment around us is deteriorated and destroyed.

We can't have prosperity by the only economic development. We need the safety and amenity environment. Therefore we must investgate sustainable higher economic development and better quality environment.

And then, what must we do? We can propose about them in every field. But we need to establish the world view that we can reform our bad conditions.

To solute the problems against environment deterioration, we need to educate and research about human's responsibility and restoration technology toward genesis's environment.

As all the truth are God's truth, we must not forget that our education and research be investigation for the truth.

Then we must know that if we free in order to know the truth, if we know the truth in order to free.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John 8:32).

I. 머리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천지와 만물, 즉 하늘과 땅과 생물과 무생

물 모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다(강병도 1993; 프란시스 웨퍼 1992; 잭 스코트 1988).

우주에서 촬영한 지구의 사진을 볼 때 지구는 둥글고 음영이 있어 아름답고 신비스럽게 느껴진다. 실제 지구의 자연을 볼 때도 산이 있고 들과 강, 바다가 있어 참 아름답다. 우주비행을 하며 지구를 볼 때 다른 별들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감탄을 한다. 또 지구에서 보는 하늘의 별들도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기자(記者)들도 아름다운 수식어로 일월성신(日月星辰)을 찬탄하고 있다. 또 생물과 무생물 각각의 오묘한 모습이나 살아 움직이는 모양, 작용하는 기능들도 참으로 아름답다. 아주 작은 미생물도 현미경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그런데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천지와 만물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특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특별히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 가고 있다. 무엇보다 인간은 이 땅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따라 언제나 하늘의 영원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명령을 망각하고 자연을 절제없이 무분별하게 이용하면서 창조환경의 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정용, 옥치상 1992). 지금까지 인간은 모든 생활 속에서 개발만을 꾸준히 추구해 왔다. 특히 기술문명을 고도로 발달시키고 이용하면서 거대한 도시화를 추구하여 인구의 집중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옥치상 1987). 이러한 결과로 생물은 억압당하고 무생물, 즉 산과 물과 공기까지도 오염되고 파괴되어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오염과 파괴의 정도를 넘어 인류파멸의 위기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제 인간 스스로, 이러한 개발을 제동을 걸지 않으면 자연이 인간을 강제로 제동하는 인간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자연이 서서히 제동을 하여 인간파멸에 이르지 않으면 좋겠지만 급격히 제동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 그렇다. 기아, 지진, 홍수, 가뭄, 페스트 등 전세계적으로 파멸적인 변화의 제동징조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 인간이 개발을 가

속하면 할 수록 자연의 급제동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개발의 가속을 줄여 자연의 제동이 일어나지 않거나 서서히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환경은 어떠하며 인간의 책임은 무엇인지, 둘째, 인간의 환경에 대한 개발의 행위는 어느 정도인지, 셋째, 지속적인 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방법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II. 하나님의 창조환경과 인간의 책임

모든 만물 중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은 바로 인간을 위한 처소인 에덴동산의 창설이다. 무엇보다 에덴동산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곳은 풍요스럽고 평화스러우며, 아름답고 안전한 축복의 터전으로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이상적인 처소였다(알버트 월터스 1992; 기독교학문학회 1988). 강이 흐르는 낙원 에덴동산은 최소한의 책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 평화를 누리며, 모든 굴레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실로 꿈과 희망과 자유가 있는 이상적인 곳이었다. 여기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최소한의 책임은 그 동산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해로운 것과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일이었다. 즉, 에덴동산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지 살필 책임이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러한 책임을 망각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상적인 터전을 건설하려고 한다. 즉 창조세계를 인간 마음대로 소유하고 사용하기 위해 기술을 창안해 내고 서로 뭉쳐 힘을 드러내기도 하며, 도구를 사용해 다른 피조물을 억압하기도 한다(기독교학문학회 1988). 더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질서를 무시한 채 자기 생각에 옳은대로 행동(불순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팽배해지고, 이윤과 편리만을 추구하여 무분별하게 경쟁함으로써, 창조환경은 오염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까지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가장 크게 나타나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칙과 목표에서 이탈한 결과는 바로 도시(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모여 사는 취락)의 건설이다(자끄 엘롤 1992). 특히 무분별하게 경제를 성장시키고, 산업기술을 발달시키며, 더욱더 산업화를 추구하여 인구를 집중시키게 하는 것은 바로 도시의 건설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환경문제는 이러한 도시 속에서 발생하고 도시화가 진행될 수록 더욱 커져만 간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위의 터전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인간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지면서 모든 만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생관계에서 살아가는 데 있다(옥치상 1990/1994). 무엇보다 인간이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로 간주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별의미 없이 무분별하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후세의 인류에게 더 나아가 피조세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로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만 우리 인간에게 맡겨 주신 자연과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키게 되며 축복받을 수 있다.

III 인간의 환경에 대한 개발행위

자연환경은 우리 인간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고, 다양한 자원의 공급자로서 식량과 에너지 등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우리가 환경으로 배출시키는 각종 폐기물을 정화해 주기도 한다(정용/옥치상 1992; 옥치상 1990/1994). 그러나 이러한 자연환경의 역할과 기능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고, 오

로지 환경용량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적당히 조절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환경파괴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인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파멸에 이르게 된다. 또 설사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장시간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법칙을 어기고 무분별한 과학문명과 경제개발을 통해 자연에 가하는 인간의 오만과 탐욕은 아주 크다.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숲을 벌채하고, 사냥을 하고, 때로는 살인도 한다. 강과 바다와 공기를 오염시켜 식량자원을 멸종시키고 있으며, 인구의 조절능력도 상실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과 자연의 순리에서 이탈하여 자신들의 분수를 모르고 경쟁만을 일삼는 행위는 자연계 뿐만 아니라 사회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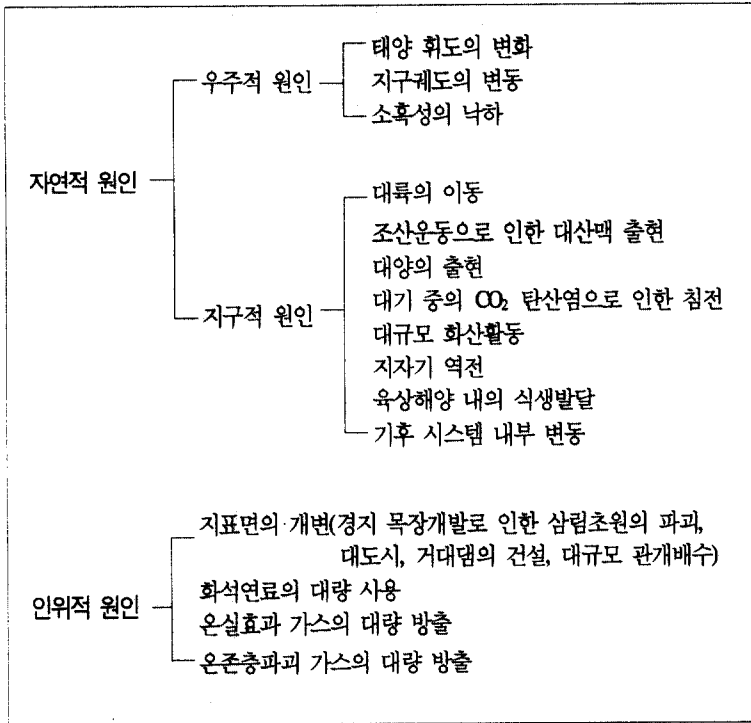
특히 도시의 건설로 인간은 자기의 강함을 천명하고 세계를 정복하려 한다. 그래서 도시의 건설은 자연의 힘, 더 나아가 하나님의 힘을 제어하기 위해서 인간이 발명한 최초의 수단이라고 한다(자코 엘룰 1992). 즉 이러한 도시는 인구를 집중시키며 시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들을 건설하여 밀집시키고, 산림을 파괴해서 팽창시키며, 또한 각종 오염물질로 강과 호수를 썩게하는 등 환경의 균형을 파괴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집중된 인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쉴틈없이 일해야 하며, 또한 피로를 풀기 위해 모든 쾌락들까지 한 데 쌓아 인간을 더욱 비인간적으로 내리닫게 하기도 한다.

오늘날 지구전체에는 파멸적 변화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주요한 지구의 환경문제는 지구의 기후변화, 대기중 온실효과와 가스축적, 산성비, 산림의 황폐화, 생물종의 멸종, 육지의 사막화 등을 들 수 있다(표 1, 그림 1, 정용/육치상 1992; 육치상 1989/1990/1994/1995). 이 중에서 첫째로 인간의 무분별한 에너지의 사용으로 일어나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극지방의 빙하를 녹임으로써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의 재앙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1백 년 간 산업화에 따른 가스배출량의 영향으로 지구 대기 중의 이산화탄

소 농도가 25% 증가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0.3~0.6℃ 상승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면 지금 일평균기온이 80년 전에 비해 1.5℃ 정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은 1907년보다 1.5℃, 부산은 1905년보다 0.5℃가 상승하고 있다.

<표 1> 주요한 지구환경변화의 원인과 영향

현상	주요한 원인	주요한 영향
지구의 기후 온난화	연간 억 톤 이상의 CO ₂ 방출 연간 100만 톤 이상의 프레온 가스 의 방출 메탄가스의 방출증대 기타 온실효과 가스의 방출 토양 유기물 바이오가스 분해촉진	600ppm은 3.0±1.5℃의 기온상승 예상 식생 농업지대의 분포의 변화 해수 위의 상승 식생의 생산력 변화
산성비 로 인한 생태계 파괴	이온산화물의 방출 질소 산화물의 방출	산림식생의 쇠퇴진행 하천토양의 산성화 진행 호소의 생태계의 붕괴 경지의 생산력의 저하 건조물의 부식의 진행
성층권 의 오존층 파괴	프레온 가스의 생산 및 방출 질소 비료의 증산으로 인한 N ₂ O 가스의 방출증대	극단자외선으로 인한 DNA손상의 증가 식물·동물에서의 돌연변이의 증가 인간의 피부암 증가 식물 생산력 저하
지구의 사막화	인구폭발 산림파괴 개발 경지 오용 경지과잉 사용 기후변화	토지 생산력의 저하 지역의 생산부양능력의 저하 임야경지의 파괴 방지 지역 기후환경의 악화 생물 유전자원의 악화



<그림 1> 지구환경의 변화 및 변동에 대한 주요한 원인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계속 증가하면 2010년에는 지구의 기온이 2~5℃가 높아지고, 해수면은 0.3~1m(1년에 3cm씩)가 상승하게 된다. 이로써 뉴욕 등 세계 주요 임해도시와 방글라데시, 중국, 이집트 등 많은 지역이 침수되리라고 한다. 또한 농작물의 재배 북한계선이 변하고, 토양미생물의 활동을 증가시켜 토양 중의 유기물 함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생산성이 떨어져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류의 현상 유지를 어렵게 하는 등 대재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는 산성비다. 산성비란 pH 5.6 이하인 빗물을 말한다. 주요한 원인물

질은 공장이나 자동차의 연료연소에서 나오는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이다. 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수증기와 결합하여 황산(H₂SO₄)과 질산(HNO₃)이 되어 빗물에 녹아 있다가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다. 부산의 경우 1995년 3월 부산전역에 산술평균 pH 4.1~4.7의 강산성비가 내렸다. 이러한 산성비가 내릴 경우 호수 내의 플랑크톤과 미생물은 물론 물고기알의 부화에도 영향을 미쳐 호수 내의 물고기가 사라지게 되고, 토양의 미생물도 죽어 숲의 황폐화가 초래된다. 또한 산성비로 인해 높아진 산도에 의해 수도관이 부식되어 식수가 납을 비롯한 여러 중금속에 오염되게도 하고, 각종 콘크리트, 대리석, 금속철재의 구조물 등을 부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산성비는 공장이 있는 지역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다른 이웃 지역, 이웃 나라에까지 내리기도 한다.

셋째는 태양이나 외계에서 오는 강한 자외선이나 감마선 등을 차단해 생물들을 보호하는 오존층의 파괴이다. 오존층은 지상 16~48km 사이의 성층권에 형성되어 있는 층이다. 이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조사되는 유해 자외선을 거의 모두 흡수해 주는 방어막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오존층이 냉매제로 사용되는 염화불화탄소(CFC) 등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 남극 상공의 오존층은 절반이, 칠레남부의 상공은 1/4, 북반구지역은 3% 정도가 얇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염화불화탄소 물질들을 더 이상 방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기중에 방출해 놓은 오염물질만으로도 오존층은 상당량 더 파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 유해자외선이 거침없이 지구로 유입되면서 지구의 생명체를 위협하게 된다. 이에 따라 냉장고나 에어컨에 사용되는 냉매제인 염화불화탄소의 대체물질(CFC, HCFC)이 개발되어 1996년부터는 염화불화탄소의 사용을 전세계적으로 금지시키기로 예정되어 있다.

넷째는 지구의 사막화이다. 곡물 생산량과 바다 어획량의 감소, 땅의 황폐화 등으로 지구는 이미 생물학적으로도 한계에 도달해 있다. 특히 마구잡이 산림의 벌채나 개간으로 땅의 비옥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로 인해 지구의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비료와 농약의 과도한 사용도 사막화의

원인이다. 이제 지구는 농부나 과학자들의 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늘어나는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없게 되었다. 쌀, 옥수수, 밀의 경우 1984년 이래 1인당 생산량이 11%나 떨어졌으며, 생선도 매년 1억 톤씩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 농지는 삼림황폐화 등으로 1970년대부터 매년 600만 ha이 사막화되고 있다. 매년 지구육지 면적의 0.1%에 달하는 약 11만 km²의 삼림이 벌채되고 있는데, 이같은 삼림개발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170년 후에는 열대우림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또 환경오염과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멸종 생물종수도 1일 100여 종, 매년 25,000~40,000여 종이나 되어 앞으로 30년 안에 지구상의 생물종 1/4 이상이 사라지리라 예상된다.

우리 나라의 환경문제를 보면 과거에는 질병, 영양실조, 보건위생 등 빈곤의 문제에서 오는 환경문제이었지만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환경오염, 안전문제, 환경파괴문제, 생태계파괴문제 등 풍요에서 오는 환경문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경제성장 위주의 산업정책으로 부와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환경측면에서는 식수가 부족해지고, 대기오염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워지는 등 생활의 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낙동강은 수천 개의 공장에서 배출하고 있는 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유입되어 음용수로는 이미 죽은 강이다. 그런데 이 강물을 구미, 대구, 부산 시민들은 계속 식수로 마시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전통도 보존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는 개성도 매력도 없는 황량한 콘크리트 건물과 포장도로만이 증가하는 도시로, 도심지의 공원 등에서는 곤충도 찾아보기 어려운 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도시 속에서 발생하고 도시화가 무분별하게 진행될수록 커져간다. 따라서 도시환경문제의 해결이 환경문제를 해결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우리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일이다. 특히 인간과 역사는 도시가 하나님께 인간에게 최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시골을 잠식할 때 나쁜 환경상태에 직면한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과거 50년 전보다 국민총생산(GNP)은 40배, 자동차는 100배로 증가했다. 또한 80%나 되었던 농촌인구는 10%로 줄어 들었고 식량자급률은 90%에서 34%로 떨어

어졌다(옥치상 1994/1990/1995/1989).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인구가 집중되고, 더우기 고도화, 거대화, 대규모화, 대량화로 물질이 한 곳에 집중됨으로써 생활환경은 오염되고,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화와 산업화를 어떻게든 억제하고 도시생활을 기능화하며, 모든 일들을 윤리화하고 계획하라고 하지만 도시와 산업건설의 모든 면이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경향으로 무분별하게 세워져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이탈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로 알려진 지속가능한 성장 개념에 입각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정용 옥치상 1992; 옥치상 1990; 환경정보과학센터 1994). 이는 환경보전과 개발을 상반관계로 인식하던 종래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개발과 보전이 똑같이 상호 보완관계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높은 경제성장과 양질의 환경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개념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즉 자손대대로 인간의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연과의 조화된 성장을 뜻한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개발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빛을 발하지 않는 이상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없는 과학은 불행한 오점을 찍을 뿐이라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사랑 안에서 잘 보살피고 다스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다. 즉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정도로 사랑하니 너희들은 나의 정원이니 이 지구를 청지기의 사명으로 쓸고 닦고 잘 보호하며 거기서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가라는 뜻이다. 이 자연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도 죽으면 자연의 극히 작은 일부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가 살고 이는 이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호하

고, 가꾸어 나가야 하겠다.

IV. 지속적인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방법

오늘날 환경악화의 영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서 높은 경제성장과 양질의 환경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며,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높은 경제성장과 양질의 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무엇보다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시켜야 한다.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독교적 접근방법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창조환경에 관한 교육으로 도시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도시가 적어도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보존의 질서 속에서 하나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일단 부르심을 받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하신 이 되시어서 그의 영광에 부합된 무엇을 만들어 내도록 기도해야 한다. 창조환경의 교육은 먼저 개개인에게 창조환경윤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키고 생활태도를 변화시킨 후 일상생활에서의 습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 때 성경말씀과 생태적 양심에 입각하여 선한 행위(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이용하고 관리하며, 우리 주변의 생물을 보호하고 그 안정성을 유지하고, 일상용품을 절약하는 것 등)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는 도시에 살지만 시골의 모습을 항상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시골(광야)은 인간의 힘이 포기되어야 하는 장소로 인간 자신의 수단에 의해 끌어내지 않고, 인간의 모든 기술과 모든 문명이 박탈당한 채 하나님에 의해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시골은 정직의 장소이고, 시골로 가는 것은 진실의 순간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전원생활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도시 속에 살고 있다. 더구나 인간이 전원생활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기를 갈망하기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전원생활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도시가 인간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유력한 형태의 하나가 되어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일어난다. 따라서 도시속에 살면서 환경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시민이 쉽게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나가도록 해서 시골에서 변화되어 다시 도시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도시근교에 환경교육장을 설치하든가 도심지를 공원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도시화가 시골을 잠식하여 더욱 나쁜 환경을 더 만들어 내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비록 시골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시골은 단순히 도시의 부속품에 불과한 것이다.

더 나아가 환경문제는 제도적(사회과학), 기술적(자연과학), 가치적(인문과학)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해결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의 기독교적 원리와 실천방법에 대한 연구 및 끊임없는 실천평가에 따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하나님의 천지창조 법칙에 대한 연구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이 없이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환경의 모습은 어떠하며 창조한 환경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우리 인간은 왜 창조되었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또한 우리 인간 생명의 가치는 무엇이고,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을 체계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여야 할 우리 인간의 목표와 행위(창조환경윤리)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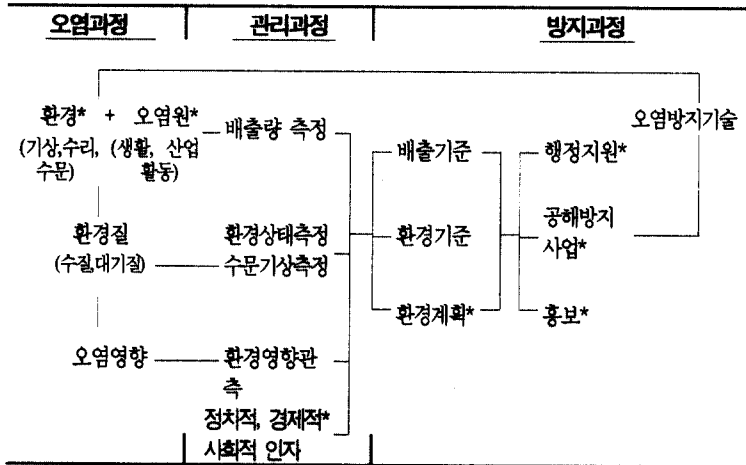
둘째, 죄의 기원과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파괴에 대한 연구이다. 환경문제는 태초 하나님과 인간 간에 이루어진 아름답고 조화로운 창조질서 및 위계를 불신과 교만으로 깨뜨려 인간상호 간의 조화 및 인간과 피조계의 조화가 깨어져 남겨진 악의 부산물들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환경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즉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데서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에 의해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이 에덴동산에서의 복된 삶을 어떻게 상실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과 창조세계의 질서에 관계하고 있는 선과 악은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한다.

셋째, 인간회복 및 구원의 역사에 따른 창조환경의 복원연구이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인간과의 직접적인 교제는 단절시키셨지만 그 관계를 영원히 청산하신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어떻게 죄에 빠진 인간들의 환경행위를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허용된 낙원(paradise)인 에덴동산의 문은 굳게 닫으셨지만 반면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인간구속의 역사를 새롭게 주도해 가셨다. 즉 은혜언약과 구원사역을 통하여 복락원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계신다. 여기서 복락원이란 최초의 에덴동산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방향의 연구의 실천방법은 오로지 창조, 타락, 구속에 의한 이론과 행위로 온전케 되는 믿음을 통한 실천방법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성도들의 끊임없는 자기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단 한가지 조건은 예수의 피공로를 힘입어 다시금 하나님과 정상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이 땅위에서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는 기독교적 접근방법이 특히 필요하다.

<그림 2> 환경관리 과정

〈표 2〉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주요한 대책

항목	내역	
빛	스카이 라인(조망)을 되살리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자.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기독교적으로 연구하고, 홍보하며,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와 체제가 필요하다.
물	수자원의 낭비를 줄이자. 물의 중요성을 어린이들에게 교육시키자. 목욕보다는 샤워를 하자. 화학물질의 과도한 사용을 억제하자. 재생된 물을 정원수로 쓰자. 화장실 변기의 물을 절약하자.	
공기	자동차의 사용을 가능한 절제하자. 되도록이면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자. 전기를 절약하자. 나무를 심자. 카풀(car pool)제를 이용하자.	
토지공간	재충전할 수 있는 건전지를 사용하자. 청결을 생활화하자.	
흐름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환경여행을 떠나자. 지구환경에 대한 기본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자. 생활의 지혜살리기 운동을 펼치자. 자연보호운동에 동참하자.	

V. 맺음말

오늘날 인간들은 경제적, 사회적, 국내적, 국제적으로, 가정과 사업장에
서, 또 전 세계를 통틀어서 모든 제한을 벗어던지고, 마치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 벌받지 않을 것처럼, 미래는 미래에 가서나 생각할 일이고

오직 현재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며 살고 있다. 그 결과 대량생산을 위한 무분별한 공업화·산업화로 한 곳에 인구가 집중하여 산업, 주택, 교통, 식량,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집단화를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주위의 창조환경은 파괴되고 오염되어 간다.

우리 인간은 경제개발만으로는 번영을 누릴 수가 없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높은 경제성장과 양질의 환경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즉 환경을 보전할 수 없는 개발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각 분야에서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세대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의 확립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문제들을 해결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인간의 책임과 창조환경으로의 복원기술의 개발 등에 관한 교육과 연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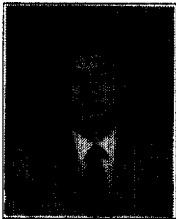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이므로 교육과 연구가 우선적으로 진리탐구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되는가 아니면 진리를 알기 위하여 자유하여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저화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즉 진리를 알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가 되려면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된다. 그러므로 전자를 기독교적 학문의 접근방향, 후자를 세속적인 학문의 접근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후자는 인본주의를 강조하기 쉬워 창조환경의 위기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강병도 편, 「호크마 종합주석」, 기독교지혜사, 1993, 1권, pp. 129~198.
2. 프란시스 웨퍼(권혁봉 역), 「창세기의 시공간성」, 생명의 말씀사, 1992,

pp. 35~84.

3. 잭 스코트(정광욱 역), 「하나님의 창조가 주는 의미/교훈」, 나침반, 1988, pp. 93~96.
4. 정용, 옥치상, 「인간과 환경」, 지구문화사, 1992, pp. 22~23.
5. 옥치상, “환경오염문제와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비판」, 6(12), 1987, 50~61.
6. 알버트 윌터스(양성만 옮김), 「창조 타락 구속」,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2, pp. 5~12.
7. 기독교 학문연구회, 「성경적 세계관 자료집」, 1988, pp. 16~27.
8. 자끄 엘룰(최홍숙 역), 「도시의 의미」, 한국 로고스 연구원, 1992, pp. 15~79.
9. 옥치상, “성경적 환경윤리와 그 실천가능전략”, 「제3회 보건과학 심포지움 논문집」, 고신대 보건과학연구소, 1994, pp. 39~38.
10. 옥치상, “환경보전기술의 방향”, 「고신대 논문집」, 18, 1990, PP. 81~88.
11. 옥치상 등, 「환경학의 이해」,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5, pp. 268~322.
12. 옥치상, “환경관리체계의 최적화 방안”, 「고신대 논문집」, 17, 1989, 353~363.
13. 環境情報科學센터, 「圖說 環境科學」, 朝倉書店, 1994, pp. 138~139.



■ 옥치상 ■

서울 시립대 환경공학과 졸업, 연세대학에서 환경관리학 석·박사 학위 취득, 현 고신대 보건학과 교수로 재직 중. 저서로는 「인간과 환경」, 「수질측정 및 수처리실험」, 「폐기물 관리 및 처리기술」 등이 있고, 논문으로 “낙동강 하구연 유속도 및 하류지역의 쾌적환경자원의 보전과 개발에 대한 주민의 태도”, “환경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등 20여 편이 있음.